

## 일제강점기 전주지역의 화재발생과 전주소방조의 활동\*

김상욱\*\*

###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맺음말     |
| 2. 전주시가지의 형성과 화재발생 | 참고문헌       |
| 3. 전주 소방조의 구성과 활동  | <Abstract> |
| 4. 전주지역 간이소방조의 활동  |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전주지역의 화재발생과 소방조의 결성과 변천을 살펴보고, 소방조의 활동과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소방조는 화재를 진압하는 단체로써 개항 이후 재조 일본인들이 결성하였다. 전주지역의 소방조 활동은 러일전쟁이 종결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전주서문 밖에서 영업하던 일본인 과자상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설소방대를 결성하였다. 1912년 서문지역에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설소방대는 공설소방조로 변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소방조를 식민통치 보조기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선인들의 항일 시위진압에도 동원하였다. 그러나 전주소방조는 전주지역의 빈발하는 화재진압에 노력하였다. 그것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雜居가 이루어진 전주지역의 공간적 특성 때문이었다.

1910년 ‘읍성철거령’에 따라 전주성벽이 철거되었다. 이에 따라 전주와 군산의 신작로가 만들어지고 전주-익산간 경편철도가 부설되면서 전주는 가로망이 완성되

\* 본 논문은 필자의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일제강점기 호남지역 소방조연구」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 국립목포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E-mail: Dan3636@hanmail.net

었다. 대정정을 중심으로 우편국, 경찰서등 공공기관이 들어서면서 화재발생도 빈발하였다. 화재는 대정정, 고사정 등 일본인 거주지역은 물론 완산정·팔달정과 조촌면 등 조선인 마을에서도 화재가 빈발하였다. 조선인들이 난방 및 음식을 조리하면서 발생한 실화 때문에 주택 및 점포화재가 많았다. 조선인 가옥에서의 잦은 화재발생으로 전주소방조의 소방장비 구입에는 조선인 자산가들의 기부가 있었다.<sup>1)</sup> 조선인 자산가들의 소방비 후원은 전주소방조에서 조선인의 구성비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전주 인근의 농촌지역의 다발한 화재는 전주공설소방조가 진압하였다. 그러나 간이소방조가 점차 농촌지역의 화재진압을 담당하였다. 간이소방조의 결성은 우가키 총독의 시책인 ‘농촌진흥시책’이 배경이 되었다. 비옥한 평야지대에 위치한 전북은 간이소방조의 보고(寶庫)였다. 전북지역에서 전주는 간이소방조의 설치가 가장 활발한 곳이었다. 간이소방조는 화재진압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농촌개량 및 야간경비에도 활동하였다.

주제어 : 간이소방조, 농촌진흥책, 사설소방대, 공설소방조, 소방망루, 소방대기소, 전북소방연합연습.

## 1. 머리말

1876년 개항을 계기로 부산, 인천, 군산 등 개항장을 중심으로 소방조가 결성되었다. 소방조는 재조일본인들이 화재로부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다. 1905년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굳어지고 내륙 지역에 일본인들이 정착하면서 소방조는 전국에 결성되었다. 소방조는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었는데 목포, 군산, 부산, 인천 등 개항장의 소방조는 부두 ‘回漕業者’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sup>2)</sup> 그러나 전주, 광주 등 내륙지역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상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본고는 일제강점기 전북의 전통 행정도시이며 내륙 거점 지역이었던 전주지역의 화재발생과 소방조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전주에 일본군이 최

1) 목포의 경우에는 1920년대 일본인의 비율이 25% 정도였지만 화재발생에 있어 일본인 실업가의 화재발생이 목포 화재의 대부분을 점유하였다. 정미소, 창고, 면화공장 등 대부분의 일본인 소유의 공장에서 화재가 빈발하였고 대규모의 소실피해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2) ‘回漕業者’는 항만·부두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무역을 하는 상인들을 말한다.

초로 들어온 것은 동학혁명이 발발하고 동학군 잔당을 색출하기 위하여 전주에 들어오면서이다. 일본군은 곳곳에 은신한 동학군을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동학군에 대한 일본군의 무자비한 학살은 일본군에 적대감을 깊게 하였고 이는 일본상인들의 전주 거주를 위축시켰다. 1905년 러일전쟁이 끝나면서 전주에는 수비대가 주둔 하였는데 이무렵 일본인 상인들도 서문밖에 정착하였다.

1907년 성벽철거령과 함께 전주성벽이 철거되면서 그 자리에는 일본인 점포가 자리하였다. 전주의 조선 상인들은 남문시장 등 전통상권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업종변환을 통하여 근대적인 상업체제로 전환하였다. 조선 상인들의 상권이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전주의 조선인 자산가들은 소방조의 장비확충 모금에 참여하였다. 조선 상인들의 소방조 후원은 향후 전주소방조의 운영과 활동에 조선인이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전주소방조의 결성과 활동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 성과는 미흡한 편이다. 그것은 전주소방조의 소방활동을 기록한 『消防組沿革誌』가 편찬되지 못하였고 소방조 활동에 대해서는 당대의 기록이 일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항이후 일제강점기 소방조의 결성과 활동에 관한 연구는 김상욱의 연구가 주목된다.

김상욱은 목포소방조,<sup>3)</sup> 군산소방조,<sup>4)</sup> 대전소방조,<sup>5)</sup> 부산소방조<sup>6)</sup>의 연구를 통하여 일제강점기 소방조의 활동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밝혀 주었다. 목포, 군산, 부산소방조의 연구가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소방조 연구였다면, 대전소방조에 관한 연구는 내륙 교통 거점도시의 소방조 활동을 조감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여기에 염복규,<sup>7)</sup> 강경구,<sup>8)</sup> 이재선<sup>9)</sup> 등의 일제강점기 소방제도와 기구를 고찰한 연구는 소방에 관한 연구를 경성지역으로 확장시켰다. 소방조와 소방제도, 그리고 일제강점기 화재발생을 살피는 성과는 김상욱의 최근 연구로 윤곽이 드러나는 추세이다.<sup>10)</sup>

3) 金相旭, 2008, 『韓末·日帝強占期(1899~1929) 木浦消防組의 結成과 活動』, 『歷史學研究』 34, 湖南史學會.

4) 김상욱, 2017, 『일제강점기(1910~1939) 공설군산소방조의 결성과 활동』, 『전북사학』 50, 전북사학회.

5) 김상욱, 2018, 『일제강점기(1910~1939) 대전소방조의 결성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6) 김상욱, 2019,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화재발생과 부산소방조의 활동-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29.

7) 염복규, 2012, 『日帝下 京城지역 소방기구의 변화과정과 활동 양상』, 『서울학연구』 49.

8) 강경구, 2017, 『경성소방서의 설치와 운영』,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9) 이재선, 2014, 『일제강점기(1910-1925) 消防運營體系의 변화와 消防署의 설립』, 『서울대학교 大學院 教育學 碩士學位論文』.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배경으로 본고는 당대 전주지역의 화재발생을 보도한 신문기록을 토대로 당대 화재발생을 일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서 『光州消防 20年史』<sup>11)</sup> 『木浦消防組沿革』<sup>12)</sup> 『群山消防組發達誌』<sup>13)</sup>를 참고하여 소방조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여기에 일제강점기 전주지역의 공간과 사회 생활을 분석한 김경남<sup>14)</sup> 박선희<sup>15)</sup>, 조정규<sup>16)</sup>의 연구와 『전주부사』<sup>17)</sup> 등의 향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본 논문의 요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전개는, 2장에서는 러일전쟁 이후의 전주성벽 철거로 인한 서문주변을 중심으로 일본인의 진출과 전주 시가지의 형성, 전주지역의 화재발생의 특성과 추세를 분석해 본다. 3장은 전주소방조의 결성과 구성원을 분석하고 전주소방조의 활동이력을 살펴보겠다. 4장은 1920년 후반에 전주인근 농촌마을에 결성된 간이소방조의 활동양상도 언급해 보겠다. 간이소방조는 우가키 총독의 ‘농촌진흥운동’의 주창으로 활성화 되었지만 공설소방조가 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농촌지역의 화재출동 공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전주인근의 농촌지역에서 결성된 전주간이소방조의 화재진압 활동과 특성도 살펴본다.

본 논문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전주지역 소방조 활동의 특성과 조직구성의 성격이 규명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주지역의 소방조와 간이소방조의 특성을 통하여 전주소방조의 정체성도 간파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2. 전주시가지 형성과 화재발생

전주는 전통적으로 전라도 행정의 중심지였다.<sup>18)</sup> 1899년 인근 군산이 개항

10) 김상욱, 2020, 「일제강점기 호남소방조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加藤畿三郎, 1933, 『光州消防 20年史』, 光州消防組.  
 12) 木浦消防組, 1929, 『木浦消防組沿革史』, 木浦消防組.  
 13) 秋山忠三郎, 1927, 『群山消防組發達誌』, 群山消防組.  
 14) 김경남, 2014, 1894-1930년 「‘전통도시’ 전주의 식민지적 도시개발과 사회경제 구조 변용」, 『한일관계사연구』 51.  
 15) 박선희, 2007, 「일제강점기 도시공간의 식민지 근대성 : 전주를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제19권 제2호.  
 16) 조정규, 「일제강점기 전주 읍치의 토지이용과 도시공간변화」, 『畿甸文化研究』 41, 2020.  
 17) 光州府, 1937, 『光州府勢一斑』, 光州府.  
 18) 전주는 1914년 전주면, 1931년 전주읍으로 1935년 전주부로 승격되었다. 여기에서 全州消防組의 활동대상인 ‘全州’의 개념은 全州郡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 군내의 全州面이고 전주읍, 전주부로 변화된 전주군의 중심으로 이루는 시가지 전주를 의미한다.

되면서 전주, 익산 인근의 농장에서 생산된 양곡을 군산항으로 실어 나르는 교통수단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바람은 철도와 도로 건설로 연결되었다. 1905년 통감부가 설치되고 대한제국 ‘內部治道局’의 전주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전주와 익산지역 농장에서 수확된 곡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도로건설이 시급하였다. 1907년 통감부는 4년 동안 21개 노선의 도로건설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전주·군산간 도로공사도 빨라졌다. 1907년 완성된 全郡도로는 서문을 起點으로 금암삼거리를 지나 동산촌<sup>19)</sup>과 24개의 일본농장을 연결시킨 노선이 있었다. 군산에서 시작된 도로가 전주성 서문에 도달하면서 전주성벽은 1909년 철거되었다.<sup>20)</sup> 서문밖의 일본인들은 성벽철거와 동시에 大正町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일대는 일식건축이 들어서면서 일본 도시에 와 있는 착각마저 들게 하였다.

全郡街道가 개설되면서 호남선 철도부설이 본격화 되었다. 1914년 전주·익산간의 경편철도가 개통되어 1927년까지 운행되었다. 1929년 경편철도가 정규철도로 개통되었고 1936년에는 남원, 여수까지 철도가 연장 운행되었다. 철도역의 설치로 인하여 고사동 일대의 가로가 1917년부터 1919년 까지 정비되었다. 그 외에 1924년부터 1934년 사이 중심부(감영일대)의 가로는 거의 개설이 완료되었다.

가로망 정비는 일본인들의 상가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09년 성벽이 없어지면서 서문 가로변 일대는 삼시간에 상가가 형성되었다. 이어서 輕便철도 정거장이 생기면서 역부근과 고사장(본정 3.4정목) 일대로 중심이 이전되었다.

1923년 서문시장이 남문시장과 병합되고 다가동 일대에 약령시가 개설되면서 상권에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남문시장과 가깝고 약령시가 열리는 인접에 일본인 집단촌과 상가가 연계되어 다가동(본정1, 2정목) 일대가 번성하였다. 1929년 전라선이 개통되자 이번에는 신, 정거장(현. 전주시청)을 에워싸고 점포가 밀집되었다. 인적, 물적 물동량이 정거장을 통하여 이루어짐에 역전 오거리에서 남문 통까지 역전 통이 들어섰다.

19) 이와자키 농장주의 호가 동산이다

20) 이정덕, 2002, 『20세기 초 전주공간의 변화 열린논단』, 119쪽.



그림 1. 전주서문 앞 전경, 1909년 전주서문 앞 성벽이 철거되기 전의 모습이다.<sup>21)</sup>

전주에 일본인의 거주는 1906년만 해도 62호에 216명에 불과하였다. 일본 상인들은 行商에 종사하였다.<sup>22)</sup> 1914년 4월 1일 전주감영이 있던 소재지 4개 면을 전주면으로 통폐합하면서 서문근처의 상권은 일본인들이 점유하였다.

전주의 중심 상권인 대정 1정목은 조선인 56.8%, 일본인 43.2%로 일본인의 토지가 많았다.<sup>23)</sup> 변화가에는 상설시장과 상업회사 등 금융기관이 자리하였는데 본정 2정목, 본정 4정목, 본정 1정목과 대정 3정목, 대정1·2정목 등이 중심 상권이였다. 대정정, 고사정, 본정에 일본식 점포인 長屋(なかや)가 들어서면서 늘어나는 인파와 점포의 밀집으로 화재의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

다음 <표 1> 은 1912-1939년 전주지역에서 발생한 28건의 화재를 분석하였다. 물론 이외에도 일제강점기 전주지역에서는 100여 건 이상의 대소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표 1> 에서 수록한 화재발생 규모는 1935년 전주와 함께 府로 승격된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기준을 적용하였다. 피해액은 ‘1,000 원 이상, 소실평수 100평 이상, 건물동수 5채, 인명피해 발생’을 수록하였다.

21) 전주문화재단, 『일제의 전주침탈과 식민시대구술실록』 제1권, 2007, 화보.

22) 全州府, 1943, 『全州府史』, 212-213쪽.

23) 장명수, 1994, 『성곽발달과 도시계획연구-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263쪽.

표 1. 1912-1939년 전주 주요화재

연번	날짜	대상	화재 원인	손해 상태
1	1912.9.22	전주서문 밖 조선인주택	원인불명	10,000원 손해 주택 25채 소실
2	1913.10.25	대정정 1정목 잠곡상 이왕권 가게	실화	5,000원 손해 주택 2동 소실
3	1917.2.22	서정 공립보통학교 기숙사	원인불명	기숙사 전동 소실
4	1923.4.25	대화정 251 김준영주택	부엌실화	주택 전소
5	1924.1.1	팔달정 식산은행 사택	실화	주택 1채 소실
6	1927.4.17	伊東面 검암리 공장	수면 부주의실화	2,000원 손해
7	1927.9.29	본정 삼정목 정응한 전당포	실화	10,500원 손해
8	1927.11.12	대화정 92 유추민 중국빵집	빵 제조 실화	4,000원 손해, 상가4동 소실, 6세 여아 소사
9	1928.1.1	팔달정 16 공업보습학교 압곡축탁 사택	실화	주택,4채 전소
10	1928.2.1	풍남정 서원숙 주택	온돌실화	30,000원 손해
11	1929.10.2	雲東下面 가천리 최관우 주택	보리굽다 실화	500원 손해, 면사무소 등 4호 8동 실화
12	1929.10.14	伊東面 검암리 견본정연 주택	온돌과열 실화	1,500원 손해 3호 소실
13	1929.10.28	고사정 송기문 떡가게	남은 잔불 실화	3,000원 손해
14	1930.1.14	伊東面 노송리 전주제지	실화	30,000원 손해
15	1930.2.4	대정4정목 전주 도립병원	실화	100원 손해
16	1930.3.28	伊東面 화산리 기전여학교	기숙사 온돌실화	2,000원 손해
17	1932.1.13	본정2정목 보신당 시계점 강창기	부엌장작실화	5,000원 손해
18	1932.3.7	본정2정목 西 지물포 최행림	온돌실화	5,000원 손해
19	1932.4.17	구이면 계곡리 마을 진명선	성냥불 실화	1,500원 손해, 12호 11동 전소, 이재민 61명
20	1932.4.16	삼례면 석전리 유양수	화장실 실화	2,000원 손해, 11호 소실
21	1932.6.4	고사정 예창기고 박태환	부엌장작실화	2,000원 손해, 2호 1동 소실
22	1932.11.14	伊東面 덕진아옥 정미소	온돌실화	1,000원 손해, 공장 전소
23	1933.5.6	구이면 두현리 김근요 주택	온돌실화	4,500원 손해, 22호 소실, 이재민 90명
24	1935.1.9	화산정 전주 야소병원	실화	100,000원 손해
25	1936.16.	고사정 소판국 자동차수선부	담뱃불 실화	자동차 2대, 가옥 한 채소실
26	1938.1.13	대정2정목 요리옥 吉兒屋별관	실화	3,500원 손해
27	1939.1.28	전주부 팔달정 내부부장 관사	응접실난로실화	10,000원 손해
28	1939.11.30	전주 사범학교	실화	본관 도서실 기숙사 소실

출전 : 每日申報, 1912. 9. 25, 全州西門外火災; 每日申報, 1912. 10. 31, 全州的 兩處火; 每日申 『報』, 1917. 2. 25, '전주보통학교화재 기숙사를 소실'; 『東亞日報』, 1921. 11. 27, '누전으로 黃金町에 發火'; 『東亞日報』, 1923. 4. 28, '全州에도 火災'; 『東亞日報』, 1924. 1. 5, '植銀社宅 火災 全州 多佳町에서'; 『東亞日報』, 1927. 3. 19, '全州에 火災'; 『東亞日報』, 1927. 4. 21, '全州에 火災 두 시간을 타'; 『東亞日報』, 1927. 10. 2, '첫 국밥에 화재'; 『東亞日報』, 1927. 11. 15, '全州에도 火災 小兒燒死 중국인 집에서 出火'; 『東亞日報』, 1928. 1. 18, '全州에 火災'; 『東亞日報』, 1928. 2. 4, '全州兩次火災 損害가 萬여원'; 『東亞日報』, 1928. 10. 24, '全州高砂町에 화재'; 『東亞日報』, 1929. 10. 24, '貧民窟火災 三戶가 全燒'; 『東亞日報』, 1929. 10. 30, '高砂町火災 칠호가 전소 전부일곱집이 타버렸다 발화 처는 朝鮮商店'; 『東亞日報』, 1929. 12. 16, '掃陽面事務所火災'; 『東亞日報』, 1930. 1. 16, '全州製絲工場火災 損害額은 三萬餘圓 지난십사일 새벽에 불이 나서 발화원인은 조사 중'; 『東亞日報』, 1930. 1. 28, '全州火災는 損害 五百餘圓'; 『東亞日報』, 1930. 1. 29, '全州火災 손해천여원'; 『東亞日報』, 1930. 2. 6, '도립병원화재'; 『東亞日報』, 1930. 3. 6, '전주에 화재 손해 오백여원'; 『東亞日報』, 1930. 3. 26, '전주 大正町에 火災'; 『東亞日報』, 1930. 4. 1, '기전여학교에 화재'; 『東亞日報』, 1932. 1. 12, '전주에 화재'; 『東亞日報』, 1932. 3. 10, '全州商街火災 損害額은 약 八千圓'; 『東亞日報』, 1932. 4. 20, '春風따라 번번한 火災 일촌락이 全滅狀態'; 『東亞日報』, 1932. 4. 20, '三禮에 大火災'; 『東亞日報』, 1932. 6. 7, '全州도 火災 損害 2천원'; 『東亞日報』, 全州德津에 火災損害천여원; 『東亞日報』, 1935. 1. 28, '전주야소병원 신축코저 활동 대화재'; 『東亞日報』, 1938. 1. 16, '전주에도 화재 吉見屋 別館 全燒 500원'; 『東亞日報』, 1939. 1. 30, '전주화재 관사1동 소실 화로에서 실화'; 『東亞日報』, 1939. 12. 6, '全州師範學校 火災官舍失火'.

일제강점기 도시 지역 화재발생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거주가 분리되었느냐 아니면 混居내지 雜居하느냐에 따라 화재발생 양상은 크게 달라졌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혼거여부는 각 도시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개항지역인 군산·광주는 朝日人의 거주지가 각각 분리되었지만 전주·목포는 朝日人 거주공간이 뒤섞여 혼거하였다.<sup>24)</sup> 전주의 중심지인 大正町, 大和町, 八達町, 高沙町 에는 일본인들이 밀집되어 거주하였다. 그렇다고 이 일대가 일본인만이 공간은 아니었다. 대정정 4·5·6정은 일본인들이 많았지만 1·2·3 정목은 조선인들이 더 많이 거주하였다. 말하자면 조선인과 일본인이 혼거하는 양상이었다.

대정정의 건축들은 대부분 1층은 점포로, 2층은 가정집으로 사용되었다. 一子式의 나가야(ながや)는 일본인 가옥의 특징이었다. 대정정 4·5·6정목의 일본 상인들은 수입약품, 신발, 술제조 공장 등 수입상품을 취급하였지만 대정정 1·2·3정목의 조선인들은 철공장·銀·종이·포목점·일용잡품·식료품을 취급하였다. 즐비하게 들어찬 상가와 상가를 가득채운 상품들은 연소에 취

24) 이러한 주거공간의 혼거여부는 개항이후 이 지역에 들어온 일본인들의 경제활동 및 지형적 영향에 따른 것이었다. 우선 목포는 개항장으로 설정된 각국거류지가 협소하였기에 일본인들은 점차 조선인 지역으로 진출하여 무안동 오거리에서 조선인과 점점 하고 목포 역전에서 조선인 상가와 혼거하였다. 여기에 비하여 비교적 개활지(開豁地)였던 군산에서 일본인들은 너른 각국거류지를 차지하여 상가를 조성하여 분리 거주하였다.



약하였고 화재를 예방하기에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화재시 점포에 적재된 상품에서 뿜어내는 유독가스는 한 모금만 마셔도 생명을 위협하였다. 이러한 연소 가스는 草屋이나 목재 연소시에 배출하는 연기보다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소사에 의한 인명피해였으나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유류의 사용과 유독연소 가스의 분출로 인한 질식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可憐할 정도로 늘어났다. 지진에 취약하였던 일본인들은 지진에 대비하여 나무를 덧대어 지은 건축물을 사용하였기에 화재시에는 일대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다.<sup>25)</sup> 1920년대 전주 시가에는 전기가 가설되면서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도 새로운 화재요인으로 등장하였다.

1930년대에 발생한 13건의 화재를 지역별로 보면 이동면 3건, 本町 2건, 高沙町 2건, 九耳面 2건으로 화재는 변화가의 점포와 변두리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전주 평야의 마을까지 고루하게 발생되었다. 특히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던 伊東面은 서문 밖을 지나 북으로 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풍부한 노동력에 기반한 식품공장, 제사공장도 이동면, 구이면에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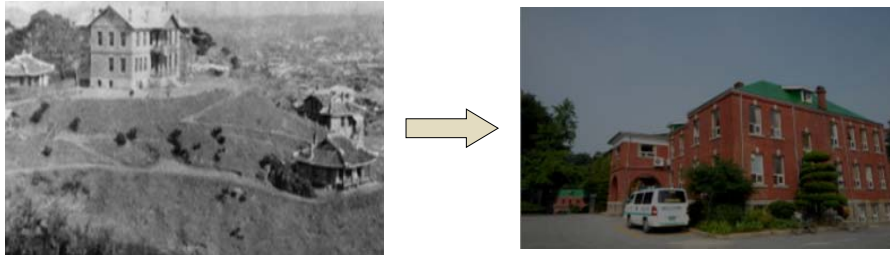
화재발생의 원인은 온돌과 난방을 위한 실화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전주의 생활방식이 생활형 도시라는 특성 때문이었다. 예컨대 전주와 비슷한 내륙 도시였던 광주의 경우 일본인들은 본정(총장로)를 중심으로 집중 거주하여 조선인과 분리 거주하였다. 따라서 화재발생도 점포 중심으로 연소되었다. 전주는 일반주택 외에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의 소실이 잦았던 것은 전주가 전북 지역의 교육, 행정의 중심지로서의 인프라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주의 화재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1910-1920년대에는 13건이 발생하였는데 보편적으로 겨울철 난방을 위한 온돌 및 굴뚝에 의한 실화가 빈발하였다. 대표적 화재를 들자면, 서정공립보통학교 기숙사(1919. 2. 22), 팔달정 식산은행 사택(1924. 1. 1), 공업보습학교 사택(1928. 1. 1) 등 공공시설에서 출화되었다. 이 무렵에는 학교기숙사 등 공공교육 시설의 화재가 많았는데 이는 전주가 전북의 중심지역으로 부각하면서 인근에서 유학온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 유숙하였기 때문이다.

1930년 들어서도 전주도립병원 (1930. 2. 4), 기전여학교의 온돌(1930. 3. 28), 전주 야소병원(1935. 5. 6) 팔달정 내무부장 관사 (1939. 1. 28), 전주사범

25) 한 채의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한지붕 아래 몇 채의 집이 이웃과 벽을 공유하는 형식의 에도시대의 집을 말한다

학교(1939. 11. 30)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특히, 전주 도립병원은 1909년에 세워진 이래 30년간 전주의 대표적인 의료시설로 병상 46개에 총 76명의 환자를 수용하였다. 전주 야소병원 또한 1899년 8월 미국인 의사 골드만이 세운 이래로 1910년 9월 2층 벽돌 건물로 세워졌다.<sup>26)</sup>



1902년 30병상 규모의 서양식건물(左)에서 1935년 화재이후 신축된 건물이다(右).<sup>27)</sup>

### 그림 2. 전주 야소병원 전경

1931년 邑으로 승격되면서 전주읍은 전북지역의 행정·문화·교육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1930년 조선총독부 全羅北道令 제12호에 의거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행정구역의 확장으로 전주거주 조선인의 비율은 더욱 높아졌다. 여기에 맞추어 화재발생 추이도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화되었다. 다음 <표 2>는 1920-1939년의 전주거주 조선인·일본인의 인구현황을 정리하였다.

표 2. 1920-1939년 전주 인구<sup>28)</sup>

(인구 : 명)

연도	일본인 (%)	조선인(%)	외국인(%)	합 계(%)
1920	2,804(17.59)	13,036(81.80)	97(0.61)	15,937(100)
1925	3,496(16.67)	17,283(82.39)	198(0.94)	20,977(100)
1930	5,204(13.75)	32,136(84.92)	502(1.33)	37,842(100)
1935	5,841(14.39)	34,386(84.71)	366(0.90)	40,593(100)
1939	5,933(13.32)	38,524(86.48)	89(0.20)	44,546(100)

<표 2>에서 전주의 인구증가는 1925-1930년에 급속히 이루어졌다. 전주는 1914년 10월 1일 전주面으로 지정되고 1930년 6월 26일 제1차 행정구역 확장

26) 홍성덕·김철배·박현석 번역, 2008, 『국역, 전주부사』 전주시·국역전주부사편찬위원회, 500-501쪽.

27) 전주문화재단, 『일제의 전주침탈과 식민시대구술실록』 제1권, 2007, 32쪽.

28) 全州府, 『全州府史』, 1943, 212-213쪽.

으로 下關面외 1개리, 伊東面 의 8개리가 편입되었다.<sup>29)</sup> 1931년에는 전주읍으로 승격되면서 완산군과 분리되어 1935년에는 全州府로 승격하였다. 1940년에는 제2차 행정구역 확장으로 완주군 이동면 중 6개리 우전면 중 1개리를 편입하였다.<sup>30)</sup> 下關面외 8개면이 편입되면서 전주 거주 일본인 비율은 1925년 16%에서 1930년 13%로 감소하였다. 반면 조선인은 1925년 82%에서 1930년 84%로 증가하였다.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 전주지역에서는 일본인에 비하여 조선인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졌다. 이것은 인근 군산이나 익산에 비하여 일본인의 거주비율이 15%-20%에 그쳤기 때문이다.

1930년대에 인구의 증가와 시가지 공간이 확장되면서 전주성 밖에서의 화재도 빈발하였다. 삼례 방향인 이동면 노송리 전주제지화재, 북문 넘어서 덕진리의 이옥 정미소화재, 소판국 자동차수선부, 시계점 화재 등 변두리 교외지역의 점포와 공장 등에 화재가 엄습하였다. 이동면 노송리의 제사공장 화재도 발생하였다. 전주의 대표적인 공장인 전주 제사공장은 1930년 1월 14일 새벽 제1공장, 제2공장까지 전소하였다.<sup>31)</sup> 특히 이동면의 전주제지공장, 제사공장의 화재는 많은 재산피해를 발생하였는데 전주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제사공장, 방직공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조선인이었기에 이들의 失職으로 연결되었다. 1930년대 인구가 많아지면서 값싼 노동력을 흡수하여 제사공장과 방직공장이 들어선 것이다. 이들 공장은 전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지만 화재는 이들의 실직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빈발하는 화재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가리지 않고 엄습하였다. 전주 변화가에서 자산을 축적한 일본인들은 재산상의 총액 피해에서는 조선인에 비하여 많은 소실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빈한한 조선인들은 소실 피해 총액에서는 일본인에 비할 바 아니었지만 고단한 농촌 및 노동생활에서 초가삼간의 소실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하여 거리에 나 앉기도 하였다.

조선인 가옥의 소실피해도 증가하였는데 구이면 진곡리 진명선의 주택의 화재(1932. 4. 17)로 촌락 12호가 전소되었고 이재민 61명, 1,500원의 소실피해와 2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다. 그해 4월 16일에는 삼례면 석진리 유양수의 변소

29) 행정개편으로 전주에 편입된 지역은 서정 상관면, 완산정 이동면, 난전면 석불리 일부, 청수정 상관면의 대성리 일부, 노송정 이동면 노송리, 소화정 검암리 일부, 화산정 화산리, 상생정 상생리 등이었다. 김경남, 2014, 1894-1930년 「전통도시」 전주의 식민 지적 도시개발과 사회경제 구조변용, 『한일관계사연구』 51, 254쪽.

30) 박선희, 2007, 「일제강점기 도시공간의 식민지 근대성 : 전주를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제19권 제2호, 60쪽.

31) 『동아일보』, 1930. 1. 16. ‘전주 제사공장 화재’.

응당이 화재로 주택 11호가 전소되고 소실피해는 2천원이 발생하였다. 1933년 5월 10일 오후 5시경 구이면 두현리 김곤요의 주택화재로 마을 가옥 22호가 소실되었다. 1933년 5월 10일에는 팔달정 정송용의 주택화재로 마을주택 9동이 전소되었다. 조선인 마을 화재발생의 특징은 비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연달아 붙어있는 초가로 인하여 순식간에 마을전체가 소실되기도 하였다.

### 3. 전주 소방조의 결성과 활동

#### 1) 전주사설 소방조의 결성

동학군의 색출을 위해 일본군은 전주에 입성하였다. 일본군은 동학군을 학살하고 민가를 불태웠기에 전주 주민에게 일본군은 공포와 반감의 대상이었다.<sup>32)</sup> 동학농민전쟁이 끝난 후에도 전주를 중심으로 의병투쟁은 계속되었다.<sup>33)</sup> 1904년 러일전쟁 중에 전주에 헌병분견소가 설치되었다. 헌병대위 이노우에 마사노리 [井上正紀] 의 인솔로 35명의 헌병이 전주군청 內作廳(지금의 재향군인분회)에서 행정사무 및 사법업무까지 관여하였다.<sup>34)</sup>

1905년 이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전주에는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고문지부’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힘입은 일본인들은 전주지역에서 점차 세력을 확장하였다. 1907년에 설치된 ‘전주경찰고문지부’는 일본인 가토 [加藤] 경시, 다나카 [田中] 경부, 순사부장 4명이 전주 作廳에서 업무를 보며 경찰권을 통제하였다.<sup>35)</sup> 이어서 전라북도 경무부 전주경찰서가 개서하면서 전주거주 일본인들의 특세를 지원하였다.

전주거주 최초 일본인은 이노우에 쇼타로 [井上正太郎] 와 모리나가 신자 [守永新三] 형제였는데 이들은 1897년 1월 1일 전주 서문 밖에 자리를 잡았다.<sup>36)</sup> 야마구치 [山口縣] 출신의 행상이었던 이들은 잡화상이나 약품<sup>37)</sup> 등을

32) 김경남, 「1894-1930年『傳統的都市』全州における植民地都市開發と社會經濟の變容」, 『韓日關係史研究』 제51집, 2015, 240쪽.

33) 全州市, 『全州市史』, 전주시사편찬위원회, 1986.

34) 서문 밖의 일본인 거리에서는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채 일의 추이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마침 헌병대가 들어왔기에 일제히 환성을 울리며 그들을 맞아들였고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홍성덕, 김철배, 박현석 번역, 『國譯全州府史』, 전주시, 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2009, 276쪽.

35) 吉川昭, 1999, 『湖南の日本人』, ふるか海事事務所, 26쪽.

취급하였다. 이들은 서문시장과 남문시장에서 영업하였는데 일본인은 성내에 거주가 금지되었고 좌판영업도 금지되었다.<sup>38)</sup>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3년째인 분위기상 전주에 일본인이 정착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sup>39)</sup>

일본상인들은 영세한 자금으로 행상·노점·중개·매춘 등 돈이 되는 일이면 닥치는 대로 일하였다. 1905년 러일전쟁이 끝나면서 전주에도 日式건물이 들어섰다. 1902년 일본인을 위한 우편국<sup>40)</sup>이 들어서고 1904년 헌병대 건물과 일본군 수비대<sup>41)</sup> 재무감독국도 건축되었다.<sup>42)</sup> 1907년 경찰서에 이어 재판소도 들어섰다. 1907년 ‘全郡街道’가 만들어져 전주와 군산의 통행량이 늘면서 서문 밖 도로는 일본식 주택이 즐비하였다. 일본식 건물이 즐비하면서 일본상인들은 화재로부터 재산을 지켜 줄 소방조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전주 최초의 소방조는 1906년 3월 결성된 ‘自警消防組’이다.<sup>43)</sup> 자경소방조는 일본인 과자상인 다루사와 미네타로 [垂澤峯太郎], 가사이 엔피라 [笠井沿平] 가 조직하였다. 소방장비는 과자상 조합장이었던 오카모토 [岡本] 가 기증한 수압펌프 1대였다. 일본상인들은 화재진압은 물론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지킨다는 의미로 ‘自警消防組’라 이름하였다.

일본인 과자상들은 말라리아약·회충구충제, 사탕·막과자·석유·칸델라·거울 등을 취급하였다.<sup>44)</sup> 사탕은 조선인에게도 인기가 높아 조선인 상인도 사탕장사를 시작하면서 일본인 상인과 경쟁하였다.<sup>45)</sup> 아루헤이토 [有平糖]<sup>46)</sup>도 일본인 상인들이 만들어 팔았던 과자였는데 판매를 두고 조선상인과 경쟁하였다.<sup>47)</sup>

36) 모리나가(守永新三)는 전주에서 최초로 발간된 신문이라 할 수 있는 전주신보를 1905년에 발행하여 전주거주 21호 72명의 일본인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全州市, 『全州市史』, 전주시사편찬위원회, 1986, 433쪽.

37) 여기서 잡화상은 사탕, 과자, 거울, 석유, 램프 등을 취급하였으며 약품은 회충약, 말라리아약 등을 취급하였다.

38) 전주문화재단, 2007, 『일제의 전주침탈과 식민시대 구술실록』, 전주문화재단, 24쪽.

39) 『全北日日新聞社』, 1912, ‘小川雄三 勇敢な開拓者’.

40) 전주문화재단, 2007, 『일제의 전주침탈과 식민시대 구술실록』, 전주문화재단, 8쪽.

41) 전주문화재단, 2007, 앞의 든 책, 38-40쪽.

42) 吉川昭, 1999, 『湖南の日本人』, ふるか海事事務所, 23-24쪽.

43) “自警消防組を創始しし”라는 全州府, 1938, 『全州府史』, 全州府, 629쪽의 내용으로 보건대 “自警全州消防組”로 칭하였다.

44) 사탕은 귀하였기에 ‘사탕 한갓치’라는 유행어도 생겨났다.

45) 朝鮮研究會, 1917, 『新朝鮮成業銘鑑』, 全羅北道編, 2-3쪽.

46) 달착지근한 사탕으로 콩을 감싼 과자의 일종을 말한다.

47) 홍성덕, 김철배, 박현석 번역 『國譯全州府史』, 전주시 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2009, 288-289쪽.

일본 과자상들은 1905년 ‘菓子屋組合’을 만들었다. 과자옥조합은 과자상과 일본인 가옥화재에 출동하는 소방조, 즉 ‘자경소방조’를 결성하였다. 전주거주 일본과자상들이 조직한 자경소방조는 자신들의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한다는 취지로 시작하였다. 이처럼 조합원 점포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해주는 소방 활동의 시초는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1666년 런던은 대화재를 경험하였다. 이 화재로 436에이커(acre)의 방대한 면적과 13,000여동의 건물이 소실되었다. 이는 런던시까지 면적의 4분의 1이었다.<sup>48)</sup> 런던대화재에 자극을 받은 영국은 보험회사가 중심이 되어 소방활동을 시작하였다. 영국 보험회사소방대의 전통은 메이지시대 일본에도 도입되었다. 동경화재보험은 1888년 일본에서 창립된 이래로 1893년에는 보험회사가 만든 자체소방조를 운영하였다. 이 회사의 상비소방대는 38명으로 보험가입 고객은 물론 동경인근의 화재진압에 출동하였다.<sup>49)</sup> 동경화재 소방조는 소방수 9명이 순번을 정하여 고객 거주지의 화재예방 순찰도 하였다.<sup>50)</sup>

전주자경 소방조는 당시 12호에 불과한 일본인을 위해 결성되었다. 자경소방조가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여 화재진압을 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자경소방조가 일본인 조합원을 위해 소방조를 결성한 취지는 영국의 ‘보험소방대’의 활동과 맥을 같이 하였다. 수압펌프는 전주의 농공은행, 재판소, 전북도청에는 수압펌프가 1대씩 비치되었는데 점차 화재가 커지면서 자경소방조는 이들 관청에서 장비를 빌려 사용하였다.<sup>51)</sup>

1911년 7월에는 자경소방조는 ‘전주의용소방조합’으로 개편되었다. 전주의 용소방조는 일본인 점포 뿐 아니라 조선인지역 화재에도 출동하였는데 정원은 일본인 68명, 조선인 50명, 총 118명으로 구성되었다.<sup>52)</sup> 1925년 5월 30일에 전주소방조 창립 15년 기념식에 표창을 받았던 10년 이상 간부들의 명단 중에 전주소방조 초대 조두였던 마쓰모토 후쿠이치 [松本福市]<sup>53)</sup>, 부조두 노리마

48) 크리스토퍼 하버트 지음·한은경 옮김, 2002, 『도시로 읽는 세계사』, 미래 M&B, 196-198쪽.

49) 東京火災保險株式會社編, 1938, 『東京火災保險株式會社五十年誌』, 東京火災保險株式會社, 240쪽.

50) 東京火災保險株式會社 編, 1938, 위에 든 책, 242쪽.

51) 全州府, 1938, 앞의 든 책, 639쪽.

52) 조두 松本福市, 부조두 乘松本藏, 島岩太郎, 岡崎大吉, 永尾利吉, 金熙石, 牛島與四郎, 湯口正坤, 小川新作, 田中爵吉, 松腦達一, 山中道太郎, 行麻七兵衛, 金福0七, 下野行吉, 春田宇一郎, 中本萬吉, 山田群一郎, 高恒菊松, 坂口平八, 萬田金次郎, 石橋三治郎, 石坂萬, 椿慊臟 등이었다. 『부산일보』, 1925. 5. 30, ‘전주소방조창립 15주년 축하식 총 10년 이상 근속자 표창’.

53) 島根縣 四伯郡 渡村출신 전주소방조의 창설일인 1911년 7월 1일부터 소방수로 시작하였

쓰 혼쿠라 [乘松本藏] 54)를 비롯하여 한토 요시로 [半島與四郎] 55), 나가오 리키치 [永尾利吉] 56), 오가와 신사쿠 [小川新作] 57) 등이 의용소방수 이었다. 소방장비는 과자옥 조합에서 승계한 펌프 1대, 갈퀴, 수통 등 초보적인 도구였다.

1912년 4월 11일 本町 3정목과 다가동 3가에 화재로 가옥 70여 호가 소실되었다. 화재발생이 증가하자 쇼지 [庄司] 전주경찰서장은 재산이 넉넉한 20세 이상의 조선인 청년 21명을 소방수로 선발하였다. 여기서 자산가는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조선인이었다.<sup>58)</sup> 조선인 소방수는 야경에 동원되었는데 ‘夜警’이란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순찰까지도 포함하였다. 이들은 1912년 2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는데 매일 22시에서 이튿날 06시까지 4명이 순찰하였다.<sup>59)</sup> 상비소방수의 보수는 1개월에 15원, 기타비용까지 70원을 책정하였다. 이들의 야경활동에 소용되는 경비는 야경구역 주민들이 부담하였는데 일본인이 40%, 조선인이 60% 부담하였다.<sup>60)</sup>

- 다가 1912년 9월 16일에 소두로 승진하였다. 1924년에 전주소방조 조두로 임명된다. 朝鮮總督府, 『市政年報 記念表彰者 明鑑』, 朝鮮總督府 市政20週年, 1,035쪽.; 1,116쪽.
- 54) 愛媛 温泉郡 堀江村 출신으로 1913년 3월 5일 전주소방조의 소방수를 시작으로 1914년 소두가 되었다. 1919년 11월 3일에는 전주대좌부 영업조합 회장이 되었고 1922년에는 2월 29일에는 전주소방조를 이끄는 대표인 소방 조두가 되었다. 같은 해 4월 12일에는 전주학교 조합장이 되었고 1923년 5월 27일에는 전주소방조 15주년을 기념하는 표창에서 전북도지사로 부터 은컵을 수상했다. 朝鮮總督府, 『市政年報記念表彰者明鑑』 위의 든 책, 1,118쪽.
- 55) 福岡縣 八女郡 光友村 출신으로 1912년 1월 4일 전주소방조 소방수를 시작으로 1922년 4월 1일 전주소방조 소두를 거쳤으며 1923년 전주소방조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은컵표창을 수상했다. 朝鮮總督府, 1935, 『市政年報記念表彰者明鑑』, 朝鮮總督府 市政20週年, 1,117쪽.
- 56) 福岡縣 京都郡 埤川村 출신으로 1912년 7월 2일 전주소방조소방수를 시작으로 1914년에는 5월 30일에는 전주소방조 소두 및 1922년 8월12일에는 전주소방조 제2부장을 역임하였다.1923년 5월27일에는 전주소방조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는 표창식에서 전북도지사의 은컵을 수여받았다. 朝鮮總督府 『市政年報 記念表彰者明鑑』, 위의 든책, 1,117쪽.
- 57) 島根縣 福光村 출신으로 1913년 1월 4일 전주소방조 소방수를 시작으로 1922년 4월 1일에는 전주소방조의 소두가 되었다. 1923년 5월 27일 전주소방조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는 표창식에서 전북지사의 은컵을 수여받았다. 朝鮮總督府, 『市政年報記念表彰者明鑑』, 위의 든 책, 1,118쪽.
- 58) 조선인 소방수 21명의 명단은 李種漢, 崔鍵柱, 崔一文, 金賢珍, 宋寅燮, 金泰元·金字珍·姜潤求, 金永述·崔敬先, 金寅台, 李京鎬·金昌棋·朴秉洙·宋昶燮·印昌煥·金世京, 邊永基·宋完燮·李龍基, 崔正基 이었다 『매일신보』, 1912. 9. 26, ‘鮮人消防組’.
- 59) 전주에서 야경 상비소방수가 조선인들로 대다수 구성된 것과는 달리 군산·목포·경성·대구 등의 상비소방수는 일본인으로 구성되었다 內務部, 1979. 『韓國消防行政史』, 內務部, 75쪽.
- 60) 『每日申報』, 1912. 12. 26, ‘전주통신 상설소방부’.

화재가 빈발하면서 전주경찰서장은 소방조를 확장하고자 조선인과 일본인 유지에게 기금 조성을 요청하였으며 팔백원은 일본인이, 나머지 천이백원은 조선인에게 징수기로 하였다. 소방비 이천원으로 완용펌프 2대와 화재진압 장비가 구입되었으며 전주헌병대, 전주농공은행에 소재하는 완용펌프 2대도 수리하였다.<sup>61)</sup>

## 2) 전주공설소방조의 구성

1913년 조지 세이타(庄司政太) 경찰서장은 ‘의용소방조’가 체계적인 규약도 없고 인원수도 적다고 보고 ‘전주공설소방조합’을 결성하기로 하였다.<sup>62)</sup> 1911년 7월에 의용소방조로 재결성한지 2년만이었다. 경찰서 순사부장을 중심으로 李康元, 柳斗徹 등 50여명의 전주유지가 소방조합 발기인으로 위촉되었다. 설립위원은 일본인 12명, 조선인 10명이었는데 공설소방조합의 활동비 및 유지비용은 주민들에게 징수하였다.<sup>63)</sup> 당시 공설소방조 결성은 경찰서장<sup>64)</sup>이나 영사<sup>65)</sup> 일본 자산가들이 주도하였다.

전주소방조는 과자옥조합, 전주의용소방조를 거쳐 1913년 7월 1일 ‘전주공설소방조’로 개편되었다. 조두에는 의용소방조 간부였던 이데이 쓰루타로 [出井鶴太郎], 부조두는 요쿠치 요시키키 [湯口良吉]<sup>66)</sup>가 임명되었다.<sup>67)</sup> 소방조의 구성은 완용펌프조가 40명씩 구성되었으며, 4명의 중견간부를 비롯하여 깃발수 2명, 파괴수 10명, 제등 2명, 사다리 5명, 총 120명이었다. 여기에 일본인 100명, 조선인은 20명이었다.<sup>68)</sup> 1911년 전주의용 소방조의 구성은 전체 118명에서 조선인은 50명으로 40% 비율이었다. 그러나 공설소방조로 전환되

61) 『매일신보』, 1912. 6. 15.

62) 조지 세이타 경부는 1910년 5월 부터 1914년 1월 20일까지 전주경찰서장을 역임하였다.

63) 『每日申報』, 1913. 5. 1, ‘전주소방조 조직변경’.

64) 목포소방조의 결성에 1909년 11월 목포경찰서장 및 경비소장으로 부임한 마쓰이 신스케 [松井信助] 경시목포경찰서장이 적극 참여하였다.

65) 군산소방조의 결성에 군산분관주임 아사야마 겐조 [淺山顯藏] 를 중심으로 군산경찰서장 핫타조노스케 [八田朝之助] 등이 개입하였다.

66) '湯口良吉' 은 전주 八達町에서 경성일보 지국장을 역임하였으며 1927년 12월 5일 오전 5시에 사망하였다. 복강현 출신이었던 그는 1908년에 한국에 건너와 전주소방조를 창설하고 최초의 부조두를 역임하였으며 전주 학교조합의원과 전주지역 일본인회 간부를 역임하였다. 『매일신보』, 1927. 12. 16, ‘湯口良吉씨 서거’.

67) 전주소방조 공설 正·副조두 역대 임명을 보자면 조두에는 出井鶴太郎, 赤川修一, 松本福市가 부조두에는 湯口良吉, 赤川修一, 松本福市, 乘松本藏 등이었다. 전주부, 『全州府史』, 1938, 全州府, 643쪽.

68) 『每日申報』, 1913. 5. 1, ‘전주소방조 조직변경’.



면서 조선인 비율은 줄어들었다. 경찰서장이 공설소방조 결성을 주도하면서 일본인 중심의 소방조합을 구상하였기 때문이다.

표 3. 전주소방조 간부명단

이름	직위	재직기간	직업
出井鶴太郎	초대 조두	1911-1913	초창기 거주상인
亦川修一	2대 조두	1913-1924	재향 군인
松本福市	3대 조두	1924년 조두	운수업대표
湯口良吉	최초 부조두	1927년 사망	전주학교조합의원, 경성일보지국장
乘松本藏	조두	1922	전주대좌부 영업조합장
半島與四郎	소두	1922	조선소방협회 표창
永尾利吉	소두	1922.4 소두	
小川新作	소두	1922.4 소두	
島岩太郎	소두	1924 소두 임명	島鐵工所 대표
金点錫 <sup>69)</sup>	소두	1913년 소두 임명	전주 실업인

출전 : 全州府, 1943, 『全州府史』, 639-642쪽.

전주소방조는 지역에서 장사를 조선인·일본인으로 구성되었다. 1912년 전주공설 소방조가 결성된 이래 이들은 지속적으로 전주소방조에 소속을 두었다. 초창기에 전주소방조를 이끌던 간부인 이데이 쓰루타로 [出井鶴太郎], 부조두는 요쿠치 요시키치 [湯口良吉]<sup>70)</sup> 등은 전주소방조의 업적을 인정받아 사후에도 공덕비를 세우고 추도식을 거행하였다.

조직을 정비한 전주공설 소방조는 지속적으로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다. 소방장비는 전주의 조선인·일본인 자산가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졌다. 전주소방조는 1930년대 들어서 화재진압에 효율적인 자동차펌프를 구입

69) 1911년 9월11일 공주소방조의 소방수를 시작한 이래 1913년 전주소방조의 소두가 되었다. 1925년 5월 27일 전주소방조 15주년 창립 기념일에 전라북도 지사의 은컵을 표창하였다. 1930년에는 10월 1일에는 전주소방조 20주년기념식에 공로자로 선정되어 전라북도지사 금메달 훈장을 수여받았다. 1934년 10월 1일에는 조선소방협회 총재로부터 다년간 소방에 종사하고 소방발전에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아 은컵 훈장을 수여 받았다. 『朝鮮總督府 市政年報 記念表彰者 明鑑』, 朝鮮總督府 市政20週年, 1035, 1117쪽.

70) '湯口良吉'은 전주 八達町에서 경성일보 지국장을 역임하였으며 1927년 12월 5일 오전 5시에 사망하였다. 복강현 출신이었던 그는 1908년에 한국에 건너와 전주소방조를 창설하고 최초의 부조두를 역임하였으며 전주 학교조합의원과 전주지역 일본인회 간부를 역임하였다. 『매일신보』, 1927. 12. 16, '湯口良吉씨 서거'.

하였는데 그것은 전주소방조의 화재진압 능력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931년 2월 11일 전주소방조는 자동차펌프 격납고 신축을 시작하였다.<sup>71)</sup> 격납고의 신축은 새로 도입한 자동차펌프를 보관을 위해서였다. 전주소방조의 격납고의 낙성식은 9월 27일부터 전야제를 치루면서 30일까지 4일간 치루어졌다.<sup>72)</sup>

전주소방조의 장비확충에는 조선인 자산가들도 참여하였다. 소방경비에 대한 후원은 1931년부터 변화되었는데 전주가 邑으로 승격이 되면서 소방비는 邑에서 부담하였다. 1929년에는 面 경비로 승용차 한대를 구입하고 이듬해 2,900원으로서 30연식 다빙자동차펌프 한대를 구입하였다.<sup>73)</sup> 최신 자동차펌프를 관리하는 상비소방수 채용도 1931년에 이루어졌다. 더불어 경상비 8,091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소방사무소 건립비로 1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건축비 1만원은 전주 자산가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하였는데 조선인에게만 과도하게 소방기금을 할당한다는 반발도 있었다.<sup>74)</sup>

조선인의 항의에 대해 전주경찰서 경무주임은 56명의 일본인이 소방비용을 쾌척하였다는 해명서를 발표하였다.<sup>75)</sup> 기부액은 金仁喆,<sup>76)</sup>이 2,000원, 白善明, 松本福市 등이 1,000원, 崔昇烈, 白南赫,<sup>77)</sup>이 500원, 도미타사토나 [富田理七], 시다토메노신 [四田留之進], 카타쿠라 生絲會社, 鄭連得, 張榮奎 등이 기부하였다. 신문기사로 본 소방기금 오백 원 이상 기부자는 조선인이 6명, 일본인 3명으로 조선인 자산가들의 소방 활동에 대한 후원은 일본인보다 월등하였다.

조선인 실업가들의 소방조후원의 배경에는 전주에서 조선인 실업가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과 재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표〉에서처럼 전주지역 1917년 이후 전주지역 5인 이상 공장은 25개였는데 이중 일본인 16개, 조선인 9개로 조선인 비중은 36% 이었다. 이것은 조선인 상권이 부진하였던 군산, 익산에 비하여 전주의 조선인 상권은 어느 정도 존립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조선인 자산가들이 소방조 활동에 기부금을 찬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71) 『每日新報』, 1931. 2. 11, ‘전주소방조격납고 신축’.

72) 『每日新報』, 1931. 9. 30, ‘전주소방기구 낙성식’.

73) 『동아일보』, 1930. 11. 13, 水管車구입 일부는 寄附로 화재 豫防코저.

74) 전주시시편찬위원회, 『전주시사』, 전주, 1964, 371쪽.

75) 『동아일보』, 1931. 5. 12, 全州消防器庫 建築費 寄附金 모집에 각방서 답지.

76) 본정 1정목에서 금융업 및 보험대리업에 종사하였다. 영업세는 2,24엔이었다. 全州商工會議所, 1938, 商工의 全州, 全州商工會議所, 52쪽.

77) 전주의 청수정에서 금융업에 종사하였다. 보험대리업을 주로 하였는데 영업세는 1,112엔을 납부하였다. 全州商工會議所, 1938, 商工의 全州, 全州商工會議所, 48쪽.

표 4. 1917년 이후 전주공장 실태(5인 이상 종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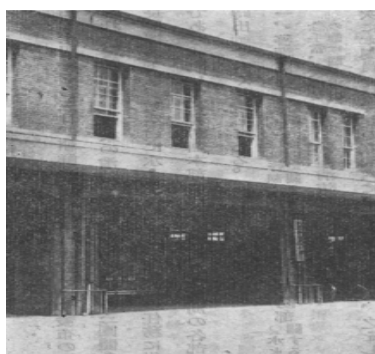
연번	회사	위치	朝日	연번	회사	위치	민족
1	林도정	조촌면	日	14	삼례주조	삼례면	朝
2	石村도정	삼례면	日	15	片倉방직	상생정	日
3	山本정미	본정3정	日	16	조선양조	상생정	朝
4	小山瓦공장	노송정	日	17	소전도정	삼례면	日
5	태양당인쇄	대화정	日	18	手塚주조	본정1정	日
6	일정정미	노송정	朝	19	윤성집도정	삼례면	朝
7	松田도정	삼례면	日	20	호남제사	청수정	日
8	전일정미	대화정	朝	21	대창정미	본정4정	朝
9	황두현도정	삼례면	朝	22	삼공정미	고사정	朝
10	이약사도정	삼례면	日	23	이승옥도정	삼례면	朝
11	岡野도정	삼례면	日	24	삼성정미	노송정	日
12	大內도정	조촌면	日	25	전북제사	노송정	日
13	다전농장	삼례면	日	26			

출전 : 김경남, 2014, 1894-1930년 「'전통도시' 전주의 식민지적 도시개발과 사회경제 구조변용」, 『한일관계사연구』 51. 260쪽.

1931년 邑승격을 앞두고 전주소방조는 자동차 격납고를 신축하면서 서문 밖<sup>78)</sup>에 있던 사무소를 대정정 1정목에 위치하고 있는 전주경찰서 구내로 옮겼다.<sup>79)</sup>



다가동 소방망루(1931)



소방차 격납고 및 사무소(1931)

출전 : 홍성덕 · 김철배 · 박현석 번역, 2008, 『국역,전주부사』 전주시 · 국역전주부사편찬위원회. 520쪽.

그림 3. 전주소방조 망루 및 대기소

78) 오늘날 전주 다가동 구, 파출소 자리가 최초의 전주소방조가 위치한 자리였다.

79) 『부산일보』, 1930.12. 전주소방조 이전 지진제 이행

소방조 대기소는 소방차 격납고, 기구보관소 및 사무소가 신축되었는데 비용은 기존의 대기소를 매각한 5천원과 면예산 2천원, 나머지는 전주 유지들의 기부금으로 충당되었다.<sup>80)</sup> 아울러 전라북도 평의원 柳彰根<sup>81)</sup>은 2,600여 원으로 화재감시 망루를 경찰서 구내에 세우고 사이렌을 달았다. 뒤이어 1930년에는 전주유지들은 1,500원을 출연 水管車 2대를 구입하였다.<sup>82)</sup>

### 3) 전주소방조의 소방활동

전주소방조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행사는 年初에 치루어지는 출초식, 봄과 가을에 열리는 春季, 夏季 소방연습 등이 있었다. 이러한 소방훈련에는 전주소방조원이 광장에 모여 결의를 다지고 소방훈련과 출동연습을 하였다. 1932년 4월 19일 열리는 전주소방조의 추계연습을 보도한 기사를 보면,

이날 추계연습에는 도내 각 지방의 소방조두와 학생들 기관장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김제 · 삼례 · 신태인 · 고산 · 부안 · 남원 · 이리 · 진안 · 고창 · 임실 소학교에서 단체로 참관하였으며, 전북도지사, 전북참여관 이하 3부장, 경찰부과장, 전주읍 공직자 등도 참석하였다. 오전 10시 마쓰모토 소방조두의 구령에 백여명의 소방원이 정렬한 가운데 시모무라 [下村] 경찰부장의 복장점검과 기구점검 전주서장의 훈시, 마쓰모토 조두의 답사, 오가와 [小川] 소두의 지휘에 완용펌프의 9인 조법, 자동차펌프 조법, 조원들의 분열식과 사다리 오르기, 완용, 증기, 자동차 펌프의 방수연습, 모의 화재탐에 소방수들의 진압 방수연습으로 시행되었다.<sup>83)</sup>

전주소방조가 1911년 공설소방조로 결성되어 1939년 경방단 창설까지 활동하면서 조두 마쓰모토 후쿠이찌 [松本福市] 는 전주소방조의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인 인물이 었다. 1922년에 조두로 취임 마쓰모토는 자동차 펌프 도입과 격납고 신축 등 소방장비 확충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전주지역 실업가와 官界에 맺어있는 마쓰모토의 인적 인프라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였다.

마쓰모토 조두가 추진한 최고의 성과는 1935년 ‘전북소방연합대연습’의 유치였다. 1935년에 4월 전주 덕진공원에서 치루어진 ‘전북소방연합대연습’은

80) 사무소는 약 70평으로 신축비용은 1만원이 소요되었다.

81) 전주 대화정에서 금융업 및 전당업, 보험업에 종사한 사업가이다. 영업세는 3276원을 납부하였다. 全州商工會議所, 1938, 商工의 全州, 全州商工會議所, 49쪽.

82) 『동아일보』, 1930. 11. 13, ‘水管車구입 일부는 기부로’.

83) 『朝鮮新聞』, 1932. 4. 21, ‘전주소방조 추계연습을 시행하다. 도내 각소방조의 견학이 많았다’.

일제강점기 소방훈련중 가장 규모가 큰 소방연합훈련으로 꼽힌다. 소방연합훈련은 지역적인 소방기술과의 연합적인 전략과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하여 ‘朝鮮消防協會’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였다.<sup>84)</sup>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소방협회를 통하여 조선인과 일본인 소방수의 민족간 間隙을 없애고 ‘內鮮融化’ 원칙 아래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 하였다. 총독부는 이러한 시책을 소방에도 과급하여 1929년 조선소방협회를 발족하였다. 조선소방협회는 소방수들에 대해 기술보급 및 표창 격려, 황국신민의 정신을 훈시하였다.

조선소방협회는 거점 지역에 소방조를 모아 연합연습을 하였는데 소방조의 연합훈련은, 첫째, 소방조에 집단통솔과 연대감을 강화시키자는 의도, 둘째, 낙후된 소방조를 훈련하고 자동차펌프 등 최산장비 소개와 새로운 진압기술을 소개하는 의미, 셋째는 소방수의 절도 있는 행진을 과시하여 군중들에게 총독부의 施惠性을 과시하려는 의도였다. 1934년 5월에 치루어진 전북소방 연합대 연습 행사장이 전주 덕진공원이었다는 것은 전주소방조의 존재감을 전 조선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sup>85)</sup> 큰 행사를 유치한 소방조두 마스모토의 위상도 상승되었다.<sup>86)</sup>

1935년 전북소방연합 대연습은 도하 신문에서도 대서특필하여 그 행사의 규모를 살펴볼 수 있다. 당일 연합연습에 출동한 전북지역의 소방조는 公設 32조 1,247명, 簡易소방조는 간이 20조 527명으로 합계 72조 1,766명이요, 그 외에 각지에서 견학 온 소방조원 890명을 합하면 이날 집결한 전북소방조원은 2,667명에 달하였다.

이외에도 이날 집결한 소방장비 완용펌프 20대, 가솔린 펌프 8대, 최신자동차펌프 7대, 증기펌프 1대를 더하여 총 36대였다. 외빈으로는 조선소방협회장 대리 新見 조선총독부 경무과장 新海 경성소방서장, 宇田충북, 片岡전남 양보안과장, 藤本 광주소방조두, 대구소방 부조두가 참석하였으며 고원훈 전라북도 도지사를 비롯하여 도청공무원을 비롯하여 道內 공무원 200여명이 자리하여 참관하였다. 오전 열시에 시작된 式은 소방연합 지부장인 전북 지사의 告辭와

84) 1929년 내선일체와 우수소방조원에 대한 표창, 소방전술개발과 보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선소방협회는 본부를 조선총독부에 두었고 협회장은 총독부의 실권자인 정무총감이 담당하였다.

85) 전주 ‘德津公園’은 1929년 10월에 건설되었으며 야구장 19,941m, 육상경기장 21,461m, 정구장 3,379m 가 들어있다. 덕진공원 신축에는 미와자키 요시즈구(宮崎吉造)가 5,000엔을 기부하였다. 전주의 부자인 박기순도 3,000원도 기부하였다. 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 『全州府史』, 1942, 481쪽.

86) 『매일신보』, 1935. 5. 12, ‘연합대연습 전주덕진운동장에서 근래 못보던 장관.

함께 조선소방협회장의 祝辭와 함께 점검 분열식을 하였다. 오후 1시부터는 모의화재와 방수연습을 행한 다음에 15시경에 式을 종료하였다. 이날 구경은 관중만도 무려 2만여명으로 이는 덕진공원 개설 이래 초유의 성황이었으며 전북소방 일대의 축제였다.

마스모토는 연합훈련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반으로 하여 전북도 관선 도의원, 전주부회의원을 역임하였다. 특히 전북소방연합대연습의 성공적인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소방협회 조선지방 대의원에 재선되어 상임의원이 되었다. 그의 재선은 조선소방협회의에서는 4명 중 유일하게 재선상임위원이 됨으로써 마스모토 1인의 영예가 아니라 전주소방조의 영예가 되었다.<sup>87)</sup>

마스모토는 이러한 여세로 1939년 전주 경방단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sup>88)</sup> 1939년 경방단이 결성되면서 전주소방조는 경방단에 편입되었다. 군국주의에 광분하면서 일제는 조선을 군사기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1939년 7월 조선총독부령 104호(경방단 규칙)에 의거 10월 1일자로 경방단이 조직되었다. 경방단은 종전의 소방조합, 수방단, 방호단 세단체를 통합하는 형태였다. 道 경방단은 도경찰부장이 총괄하였고, 府·郡은 해당 관하 경찰서장의 지휘하에 방공·소방 기타 경방업무에 경찰의 원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경찰서장은 경방단에 대해서 연1회 교양훈련을 행하고 수시로 단원들에 대한 훈련점거, 교련, 예식, 관계법령 및 기타 필요한 교양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였다. 당시 경방단은 전국에 2,431개가 결성되었는데 경방협회 총재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오노로 쿠이치로 [大野録一郎] 이었다. 전라북도에서는 1939년 10월 1일에 각부읍면에서 소재지에서 일제히 결단식이 거행되었다. 경방단은 179단이었으며 9,418명으로 구성되었다. 전주경방단에서는 전주 소방, 수방, 방호 세 단체의 해소에 의하여 결성되었는데 소방조는 여기에 소방부장을 두어 경방단의 한 부서로 소속되었다.

87) 『부산일보』, 1937. 12. 29. ‘소방협회상임위원중임’.

88) 1930년 11월 16일 마쓰이 조두는 돌연 사표를 제출하였다. 그의 돌연한 사임에 전주경찰서장은 부조두 노리마쓰 혼쿠라 [乗松本藏] 를 조두로, 제1부장으로 있는 나가오리키치 [永尾利吉] 를 부조두로 내정하였다. 그의 사임에 일반소방수들은 부조두 노리마쓰 등을 면담하여 마쓰모토 조두의 유임을 주장하였다. 조원들과 간부들의 의견에 결국 경찰서장과 면장은 마쓰모토를 면담하고 마쓰모토는 사표를 철회하였다. 마쓰모토의 일주일 만에 사표철회는 생각컨데, 자신의 입지와 지도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표 5. 전주경방단 간부명단

지위	직위	주요경력	근거문헌
경방단장	마쓰모토 후쿠이찌	전주소방조두	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 『全州府史』, 1942, 521쪽.,
부단장	기타모토 마쓰오 [北本松男]		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 『全州府史』, 1942, 521쪽.
전주부면장	崔昇烈	전주권인쇄주식회사	『동아일보』, 1930.12.23, '주요도 시순회좌담 전주편'.
서무부장	이시카와 니이치로 [石川仁一郎]		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 『全州府史』, 1942, 521쪽.
소방부장	나가오 리키치(永尾利吉)	전주소방2부방, 소방협회전주지부평의원	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 『全州府史』, 1942, 521쪽.
소방부부장	오가와 신사쿠(小川新作)	전주소방 부조두	朝鮮總督府, 『市政年報記念表彰者明鑑』, 위의 든 책, 1,118쪽.
경방부장	후쿠다 기사쿠 [福田喜作]		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 『全州府史』, 1942, 521쪽.
방독부장	우에다야스하루 [上田康晴]		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 『全州府史』, 1942, 521쪽.
방독부부장	고레나 카이키라(是永章)	전주고등 여자학교 근무	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 『全州府史』, 1942 521쪽.
구호부장	宋重燁	全州 平安 醫院長	『매일신보』, 1930.8.31, '평안의 원발전 신망두터워'.
구호부부장	殷成學	전주경찰서 근무	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 『全州府史』, 1942
상비소방반장	곤노 히로시(近野廣)	전주 소방조 소방수 재향군인회	1935.9.26. 매일신보, 재향군인회 무도대회, 근양광사격부분 1등

출전 : 全州府, 1943, 『全州府史』 650-651쪽.

경방단 결단식은 1939년 10월 1일 오전 10시에 다가정 전주신사 앞 광장에서 거행되었었고 단장 이하에게 각각 사령이 교부되었다. 전주경방단을 구성하는 간부들을 살펴보면 소방조의 간부들이 경방단의 핵심역할을 하였다.

경방단장에는 소방조두인 마쓰모토가, 소방部長 및 副部長 자리도 소방조 간부가 자리하였다. 상비소방 반장도 상비소방수인 곤노 히로시가 차지하였다. 경방단이 결성되면서 소방조는 경방단에 소속되었다. 경방단장은 지역의 유력자나 권세가들이 대부분 차지하였으며 소방조두는 경방단 소방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전주에서 만큼은 조두 마쓰모토가 경방단장에 임명됨으로써 경방단에서 전주소방조의 높은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표>에서 전주소방조에 간부들이 경방단의 간부에 다수 임명된 사실로 알 수 있다.<sup>89)</sup>

#### 4. 전주 간이소방조의 활동

간이소방조는 1932년에 부임한 우가키 가즈시게(宇恒一成)총독이 추진한 ‘農村振興運動施策’에 힘입어 추진되었다. 우가키는 농촌진흥운동에 소위 ‘日鮮融合, 內鮮一體化’ 운동을 전개하여 식량증산과 내선일체를 조선통치에 활용하였다.<sup>90)</sup> 총독부는 ‘農村振興運動施策’을 전국적으로 파급시켜 도·군·읍·면은 물론 경찰, 관리, 학교, 금융조합 등이 농민지도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간이소방조에 대한 기록은 소략하다.<sup>91)</sup> 간이소방조 기록은 당대 신문보도와 『朝鮮消防』<sup>92)</sup> 등에서 간단히 찾을 수 있다. 조선소방협회에서 펴낸 『朝鮮消防』에는 “전라북도는 간이소방조의 왕국이었다”<sup>93)</sup>고 간이소방조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전북지역에 설치된 1936년 간이소방조는 158조, 5,254명 이었다.

전북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간이소방조가 설치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만경강을 젖줄로 펼쳐진 호남평야는 조선 최대의 식량식민지로 부상하고 있었다.<sup>94)</sup> 따라서 호남지역 농촌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재조 일본인들의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일제는 전주·익산·김제 등에 일본인 지주들이 거주하면서 호남평야 개발을 통한 동화주의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내지와 식민지의 문명의 간극(間隙)을 줄여 궁극적으로 日本化 한다는 소위 ‘內鮮融合策’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호남 농촌에서는 도시의 거주형태인 조일인의 분리거주와는 반대로 ‘內鮮雜居’의 거주형태가 농장촌에 만들어졌다. 이와 동시에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 말 부터 농촌정책인 ‘모범위생부락’ 사업을 추진하였다. ‘모범위생부락’은 전북에서 이례적으로 성행<sup>95)</sup> 하였는데 1933년 우가키 총독의 농촌진흥운동과 맞물려 각도의 농촌자력 갱생운동과 교류시키는 형태로 장려하였다.<sup>96)</sup>

89) 宋重燁는 평남 순천 출신이었지만 전주에 거주한 이래 지역의료 사업에 관여하였으며 경방단에도 구호부장으로 관여하였다. 구호부 부장인 殷成學이 경찰서원이고, 방독부 부부장인 고레나 카아키라가 학교 雇員 신분인 것으로 보아 부부장은 관련 부서 직원이 임명되고 부장은 지역의 유지나 유력자들이 임명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90) 최혜주, 2019, 잡지 『朝鮮公論』의 1930년대 사설에 나타난 조선통치론과 내선융화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8, 199쪽.

91) 秋山忠三郎, 『群山消防組發達誌』, 1927.; 『大田消防組發達史』, 1933.; 『木浦消防組沿革史』, 1929.; 『光州消防二十年史』, 1933 등의 소방조 연혁사에도 간이소방조의 활동은 언급되지 않았다.

92) 『朝鮮消防』, 1936, ‘全北道の 簡易消防組’, 第8年 7月號, 68-70쪽.

93) 『朝鮮消防』, ‘第8年 6月號’, 1936, 27쪽.

94) 마스모토 다케노리(松本武祝)·정승진, 2018, 『호남지역 위생 의료문제 : 일제 위생규율의 식민지 지역사회에 대한 침투와 한계』 『의사학』 제27권 제3호,

95) 松本武祝, 2005, 『朝鮮農村の 植民地近代く經驗』, (東京 : 思文閣出版), 83쪽.



1930년대 초반 우가키가 조선총독으로 부임할 무렵, 일제는 만주를 침략하고 전쟁준비를 강화하는 등 군국주의가 본격화 하였다. 우가키는 긴박한 국제정세에 맞추어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정책을 조율하였는데 그것이 ‘농산어촌진흥운동(이하농촌진흥운동)’이었다. 우가키의 농촌진흥운동은 1932년 6월 전국 도지사회의에서 발표되었다. 당시 농촌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한 농촌의 혁명적 기운을 진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우가키 총독은 이러한 시국에 조용하여 농촌진흥운동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우가키는 농촌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內鮮融和’를 진척시키고 농촌사회를 안정시켜 조선인의 기본생활을 유지토록 한다는 조선통치 방침을 밝혔다.<sup>97)</sup> 내선융화는 조일인을 대립시키는 민족·계급의식을 차단하여 민족해방운동을 소멸시키고자 하였다. 1929년 조선소방협회가 발족된 것도 이러한 내선융화의 일치를 소방을 통하여 구현 시키자는 발상이었다.<sup>98)</sup> 화재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재난이었다. 따라서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활동은 조일인을 공동으로 묶는 활동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소방활동의 특이성에 착안하여 소방조를 내선융화의 선봉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1932년 6월 전국 도지사회의에서 우가키는 빈곤에서 농민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농조직을 다각화하고 자립정신을 확대토록 훈시하였다. 이러한 시책 추진은 면사무소나 군청에서 지도와 통제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책을 연결고리로 하여 민족의식이나 계급의식을 말살하고 농민을 식민지 체제로 포섭토록 하였다.<sup>99)</sup> 이 운동은 전국에서 실시되었지만 평야지대에 농장이 집중된 전북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성과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동리 단위의 우물수리, 변소개량, 공동 목욕탕 청소, 전염병 예방 등이었다. 이러한 운동은 이러한 농촌 모범부락 운동은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의 간이소방조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전북 간이소방조의 활성화는 전북 보안과장 이시카와 소시로 [石川宗四郎] 가 주도하였다.<sup>100)</sup> 간이소방조에 대한 이시카와의 관심은 그가 전북에서

96) 『全北の成績 徴し模範衛生部落/全鮮普及計劃か』 『朝鮮新聞』, 1933,2,24.

97) 이윤갑, 2007, 『우가키 가즈시게(宇垣 一成) 총독의 시국인식과 농촌진흥운동의 변화』, 『大邱史學』 87輯, 43쪽.

98) 조선소방협회는 불을 끄는 일에는 조일인의 구별이 있을수 없으며 소방조가 내선융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아래 결성된 소방지원단체이다. 조선소방협회장은 총독부 정무총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였다.

99) 이윤갑, 『우가키 가즈시게(宇垣 一成) 총독의 시국인식과 농촌진흥운동의 변화』, 『大邱史學』 87輯, 2007, 47쪽.

100) 秋田縣 출신이다. 1914년 渡鮮하여 1919년 순사부장, 1920년 경부보로 임명되고,

경찰서장을 두루 역임하고 소방조의 중요성을 경험하였기에 가능하였다. 간이 소방조 활동의 求心은 전주 간이소방조였다. 전주 간이소방조의 활성화에는 전주경찰서장 야기 미쓰키 [八木光喜] 경시의 열정이 있었다.<sup>101)</sup> 야기 경찰서장은 이시카와 경무부장과 함께 간이소방조 조직화를 추진하였다.

전주소방조가 인근 먼거리 화재진압에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전주경찰서가 전주군 일대도 관할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방조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시에 소방조도 화재에 출동하였다. 전주경찰서 관내에 九耳는 전주에서 89리 (34키로) 떨어졌으며 주재소에는 두 명의 순사가 있었다. 그러나 전주소방조의 출동이 너무 원거리였기에 구이면 주재소에서는 간이소방조가 만들어져 소방조 도착 전까지 진화를 하였다. 다음 <표 5-3>은 전주경찰서 관내 간이소방조의 현황이다.

표 6. 전주경찰서 관내 간이소방조 현황(1936) (단위 : 명)

소방조 이름	조원 수(명)	面	面 인구
雲仙	43	雲洲	1,928
雲東下	35		
三奇	30	高山	2,112
華山	18	華山	813
飛鳳	24	飛鳳	1,021
東上	21	東上	669
九尾	25	鳳東	2,510
海田	31	參禮	2,429
舊瓦	31		
花田	15	助村	2,521
龍亭	20		
下關	23	伊西	1,466
德津	23	伊東	1,460
九耳	26	九耳	1,929
合計	365		18,858

출전 : 『朝鮮消防』, 1936, 第8年 6月號, 36쪽.

1923년 도경부가 되었다. 전북 고창경찰서장에 임명되고 전북 金堤, 井邑, 裡里 각 경찰서장을 역임하였다. 1934년 전북 경찰부 보안과장을 역임하였다. 內尾直二, 1041, 『人事興信錄』, 35쪽.

101) 熊本縣 출신으로 1911년 韓國에 와서 경찰에 투신, 1919년 12월 경부보로 승진, 1921년 2월 경찰교관이 되었다. 1922년 11월 도경부로 영진하여 軍威, 永川, 浦項 지역 경찰서장을 역임하였다. 1934년 11월 도경시로 승진하여 전주경찰서장으로 부임하였다. 阿部薰, 1935, 『朝鮮功勞者銘鑑』, 821쪽.

1936년 전주군에는 20면 173개의 마을이 있었다. 면 단위는 全州面, 草浦面, 龍進面, 上關面, 鹽田面, 兩林面, 伊東面, 助村面, 鳳東面, 伊西面, 參禮面, 所陽面, 九耳面, 高山面, 三奇面, 飛鳳面, 雲仙面, 樺山面, 東上面, 雲東下面 등이었다.<sup>102)</sup> 이들 중 11개면이 간이소방조를 편성하였다. 전주군의 간이소방조원의 숫자는 365명으로 전라북도 간이소방조 3,450명의 10%를 넘는다.<sup>103)</sup> 이처럼 전주경찰서 관내 간이소방조 설치 비율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았다. 간이소방조의 구성은 적게는 20명에서 크게는 46명까지 마을단위로 구성되었으며 雲洲(1,928명), 參禮(2,429명), 助村(2,521명) 등의 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간이소방조가 두개 설치된 지역도 있다. <표 5-3>에서 간이소방조가 설치된 면 인구의 총합은 1,858명인데 간이소방조는 365명으로 어림잡아 인구 6명 중 한 명이 간이소방조에 가입되었다는 공식이 산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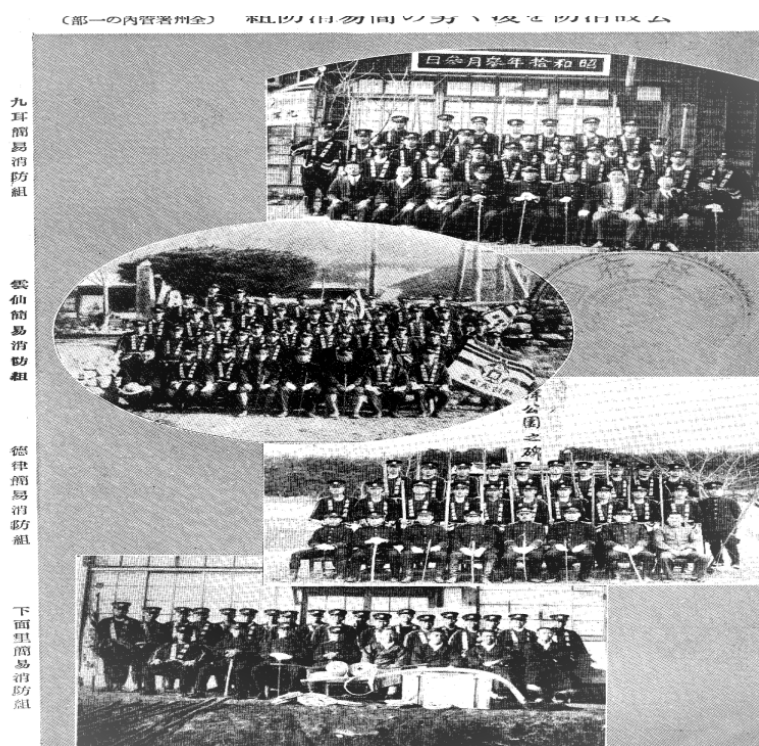


그림 4. 1930년대 전주지역의 구이·운산·덕진·하면 간이소방조의 모습이다.

102) 全羅北道, 1927-1935. 『全羅北道要覽』,

103) 전주소방조는 전주면의 화재는 물론 전주군의 화재발생에도 출장하여 진압하였다. 이것은 소방조에 대한 지시권을 전주경찰서장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였다. 전주경찰서는 전주면은 물론 전주군산하의 모든 업무를 관할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1921년부터 1940년까지 전주지역에 발생한 주요화재를 검색하면 총 94건 중 16건이 전주군 주변의 간이소방조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발생하였다.<sup>104)</sup> 이는 전주지역 전체 화재의 17%로 다섯 건에서 한 건이 면지역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급박한 화재가 발생하면 원거리에서 출동한 전주소방조가 도착하기까지는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었기에 피해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면 이하의 마을단위에 설치된 간이소방조의 활동은 공설소방조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었다.

구이면은 1936년 3월 3일 간이소방조 발회식을 하였다. 구이면의 간이소방조 산파역은 구이주재소 수석 마쓰모토 [松本] 순사부장이었다. 마쓰모토 [松本]는 청년들을 소집하여 소방이론을 가르치고 조원을 훈련하였다. 구이 간이소방조는 완용펌프가 없었기에 화재에는 양푼(큰 바가지 일종)이나 바케쓰(양동이)로 화재에 대처하여 ‘바케스 소방’이라고 칭하였다. 간이소방조는 화재진압 외에도 농가필수의 퇴비의 貯造, 공동소작제, 경지정리까지 담당하고 도로의 수선, 식수개발에도 동원되었다. 간이소방조원의 봉사는 무보수로 하였으며 도시락도 각자 준비하였다.

구이 간이소방조의 복장은 구이면 사무소에서 구입하여 지급하였다. 전주서관내의 德津, 雲仙, 下關, 新星 등의 간이소방조는 지속적인 훈련교육을 하였다.<sup>105)</sup> 1934년 전라북도 공설소방조는 공설 소방조 56, 조원 3천명, 펌프자동차 9, 증기 2, 가솔린 18, 腕用 76, 기타 수관자동차 4, 手挽수관차 32, 수송차 23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간이소방조 또한 1934년에 조수가 145, 조원은 4,937명이었다.

104) 『東亞日報』, 1929. 10. 29, ‘전주에 화재4호 팔동 전소 전북전주군 운동하면’.; 『東亞日報』, 1929. 10. 18, ‘전주에 또 화재, 이동면’.; 『東亞日報』, 1929. 12. 16, ‘소양면사무소화재’.; 『東亞日報』, 1930. 1. 16, ‘전주제사공장화재 이동면 로송리’.; 『東亞日報』, 1930. 4. 1, ‘기정교 화재손해 2000원, 이동면 화산리’.; 『東亞日報』, 1930. 12. 14, ‘三奇面 火災’.; 『東亞日報』, 1931. 4. 1, ‘전주 조촌면 화재’.; 『東亞日報』, 1931. 5. 21, ‘전주에 화재 간질병 환자소사, 조촌면’.; 『東亞日報』, 1931. 1. 12, ‘전주 조촌면 화재’.; 『東亞日報』, 1931. 4. 20, ‘촌풍따라 번번한 화재 일촌락이 전멸상태, 전주군 구이면 화재’.; 『東亞日報』, 1932. 4. 20, ‘삼례에도 대화재’.; 『東亞日報』, 1932. 4. 23, ‘유림면 방화화재’.; 『東亞日報』, 1929. 10. 29, ‘전주에 화재4호 팔동전소 전북전주군 운동하면’.; 『東亞日報』, 1932. 11. 16, ‘덕진에 화재 손해 천 여원, 이동면 덕진’.; 『東亞日報』, 1933. 5. 18, ‘전주군 상관면 화재’.

105) ‘신성간이소방조’는 조창설의 계획을 수립하고 복장을 주문하여 발회식전에 조원들에게 피복류를 교부했다. 그 후 마을 청년들이 모자를 쓰고서 의기양양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날 교부한 조원의 모자였는데 두루마기 위에 태연하게 모자를 쓰고서 득의양양하게 있는 것이다. 마을청년 및 일반 주민의 간이소방조에 대한 자부심을 볼 수 있다. 『朝鮮消防』, 1936, ‘第8年 6月號’, 28쪽.

## 5. 맺음말

전주는 조선시대부터 전통적인 행정도시이자 상업 도시였다. 전주에 일본인 거주자의 본격화된 것은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결되면서이다. 서문밖에 거주하던 일본상인들은 성벽철거령이 본격화되면서 성안에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한일합병이 되면서 서문밖에는 시장이 형성되고 대정정에는 일본인 상가와 점포가 형성되었다.

전주-군산간 신작로가 만들어지고 호남선 철도를 연결한 경편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전주의 교통망도 정비되었다. 전주시가지에는 직선 가로망 도로가 연결되고 일본식 관청이 만들어지면서 전주는 전통의 도시에서 근대도시로 탈바꿈되었다.

전주 거주 일본인은 군산이나 익산에 비하여 적은 숫자였다. 동학교도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일본인에 대한 전주 주민들의 반감 때문이었다. 일본인의 낮은 거주는 전주의 상권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전주에서 조선인들이 전주주요공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전주 시가지가 형성되고 인구가 밀집되면서 화재발생의 양상도 변화되었다. 일제강점기 1912년부터 1940년대까지 전주 지역에 발생한 주요화재를 보도한 당대신문을 분석해 보면 화재가 가장 다발했던 시기는 1928년부터 1935년까지였다. 1931년 전주읍 승격과 1935년 전주부로의 승격과 성장을 거치면서 시가지 확장과 인구증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화재발생의 대부분이 점포나 주택에 집중되었던 것은 전주가 아직까지 상업도시라기 보다는 주거형 생활형 중심도시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화재발생 원인적인 면에서도 난방형 취사의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였다. 화재는 일본인 점포가 밀집된 大正町에서 다발하였지만 조선인·일본인이 혼거하는 高砂町에도 화재가 집중되었다. 조선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완산정, 팔달정에서 화재가 다발 한 것은 전주지역 화재는 조선인 일본인들이 혼거하는 지역에서 화재가 가리지 않고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주소방조의 결성은 1912년 서문 지역에 화재가 다발하면서 전주경찰서장이 주관한 전주공설소방조가 결성되었다. 전주 소방조의 간부는 일본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조선 상인들도 소방조 운영에 참여하였다. 조선인 거주지의 잦은 화재로 전주의 조선인 자산가들은 소방비를 기부하였다. 조두였던 마스모토는 전주의 대표적 상인으로 조선소방협회 대의원으로도 추천되었다. 마스모토의 역할은 1935년에 德津公園에서 치루어진 전북소방 대연습을 성공적으

로 치루는 데서도 발휘되었다. 전주소방연합대연습은 전국규모의 연합연습으로 이후 마스모토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마스모토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전주소방조에서 조선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었다.

1939년 발족된 전주경방단에서도 전주소방조의 간부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경방단에서 소방조 간부들이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오랜동안 전주 상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주공설소방조의 활동 이외에도 전주평야에 인접한 농촌지역에서는 간이소방조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화재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불문하고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재난이었다. 따라서 총독부는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조를 앞세워 조일인의 일체를 추구하는 ‘內鮮融和策’을 선전하였다. 이러한 내선융화책은 우가키 총독의 농촌진흥운동과도 부합된 시책이었다.

우가키 총독의 농촌진흥 운동에 힘입어서 농촌에서 전주간이 소방조는 활발히 활동하였다. 전주간이 소방조는 전북지역에서 가장 높은 결성을 보였는데 면사무소에 소속되어 면과 지서의 주재하에 화재진압활동, 농촌개량 사업, 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다.

논문접수일: 2020. 11. 09. / 심사개시일: 2020. 11. 16. / 게재확정일: 2020. 11. 25.

## 참고문헌

### 자료

- 加藤畿三郎, 1933, 『光州消防 20年史』, 光州消防組.  
光州府, 1937, 『光州府勢一斑』, 光州府.  
內務局 地方課, 1935, 『資料 완산구 토지대장』.  
內尾直二, 1941, 『人事興信錄』.  
東京火災保險株式會社編, 1938, 『東京火災保險株式會社五十年誌』, 東京火災保險株式會社.  
每日申報, 『東亞日報』, 『부산일보』, 『朝鮮新聞』, 『朝鮮消防』, 『全北日日新聞社』.  
木浦消防組, 1929, 『木浦消防租沿革史』, 木浦消防組.  
阿部薰, 1935, 『朝鮮功勞者銘鑑』.  
全羅北道, 1927-1935. 『全羅北道要覽』.  
全州府, 1943, 『全州府史』.  
全州商工會議所, 1938, 『商工의 全州』, 全州商工會議所.  
朝鮮研究會, 1917, 『新朝鮮成業銘鑑』, 全羅北道編.  
朝鮮總督府, 1930, 『施政二十年年史』.  
朝鮮總督府, 1935, 『市政年報記念表彰者明鑑』, 朝鮮總督府 市政20週年.  
秋山忠三郎, 1927, 『群山消防組發達誌』, 群山消防組.

### □ 단행본

- 吉川昭, 1999, 『湖南の日本人』, ふるかわ海事事務所.  
김종규, 2001, 『군산역사이야기』, 나인.  
內務部, 1979, 『韓國消防行政史』, 內務部.  
이정덕, 2002, 『20세기 초 전주공간의 변화 열린논단』.  
전주문화재단, 2007, 『일제의 전주침탈과 식민시대 구술실록』, 전주문화재단.  
크리스토퍼 하버트 지음, 한은경 옮김, 2002, 『도시로 읽는 세계사』, 미래 M&B.  
홍성덕, 김철배, 박현석 번역, 2008, 『국역, 전주부사』, 전주시·국역전주부사편찬위원회.

□ 논문

- 강경구, 2017, 「경성소방서의 설치와 운영」,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 金相旭, 2008, 「韓末·日帝強占期(1899~1929) 木浦消防組의 結成과 活動」, 『歷史學研究』 34권.
- 김경남, 2014, 「1894-1930년 ‘전통도시’ 전주의 식민지적 도시개발과 사회경제 구조변용」, 『한일관계사연구』 51집.
- 김상욱, 2020, 「일제강점기 호남소방조 연구」,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 김상욱, 2017, 「일제강점기(1910~1939) 공설군산소방조의 결성과 활동」, 『전북사학』 50호.
- 김상욱, 2018, 「일제강점기(1910~1939) 대전소방조의 결성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6권.
- 김상욱, 2019,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화재발생과 부산소방조의 활동-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38권.
- 김영근, 2004, 「도시계획과 도시공간의 변화」,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49권.
- 마스모토 다케노리(松本武祝), 정승진, 2018, 「호남지역 위생 의료문제: 일제 위생규율의 식민지 지역사회에 대한 침투와 한계」, 『의사학』 27권 3호.
- 박선희, 2007, 「일제강점기 도시공간의 식민지 근대성: 전주를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19권 2호.
- 松本武祝, 2005, 『朝鮮農村のく植民地近代く經驗』, 東京: 思文閣出版.
- 염복규, 2012, 「日帝下 京城지역 소방기구의 변화과정과 활동 양상」, 『서울학연구』 49호.
- 이운갑, 2007, 「우가키 가즈시게(宇垣 一成) 총독의 시국인식과 농촌진흥운동의 변화」, 『大邱史學』 87집.
- 이재선, 2014, 「일제강점기(1910-1925) 消防運營體系의 변화와 消防署의 설립」,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장명수, 1994, 『성곽발달과 도시계획연구-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p. 263.
- 조정규, 2020, 「일제강점기 전주 읍치의 토지이용과 도시공간변화」, 『畿甸文化研究』 41권 1호.
- 최혜주, 2019, 「잡지 『朝鮮公論』의 1930년대 사설에 나타난 조선통치론과 내선융화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8호.



<Abstract>

## **Fire Outbreaks in Jeonju and Activities of the Jeonju Fire-Fighting Servi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Period**

Kim, Sang-Wook\*

This study speculated on fire outbreaks, organization and change of the fire fighting service in Jeonju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investigated the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

A fire-fighting service was organized to control fire by Japanese people living in Joseon after the opening of ports. Fire-fighting activities in Jeonju were actively performed when the Russo-Japanese War ended. The Japanese people selling sweets outside the West Gate organized a private fire-fighting team for their safety in 1907 and it was changed to a public fire-fighting team when a big fire broke out in the West Gate in 1912.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mobilized it against anti-Japanese demonstrations of Joseon people as an assistive organization for colonial control. However, the Jeonju Fire-Fighting Service made efforts to control fires that frequently broke out in Jeonju because of its spatial characteristic that Joseon people lived together with Japanese people.

In accordance with the 1910 Eup Fortress clearance order, the Jeonju fortress wall was cleared, which was replaced by lots of Japanese stores. In addition, As roads were newly constructed in Jeonju and Gunsan and a railway was constructed connecting Jeonju to Iksan, Jeonju was equipped with street networks and transportation system. Public institutes including a postal office, police stations, and banks centering on Daejeongjeong, the aspect of fire outbreak was changed. In Japanese residences including Daejeongjeong and Gosajeong, fires broke out in Japanese-style buildings. However, in agricultural villages like Wansanjeong, Paldaljeong and Jochonmyon many Korean lived, fires frequently broke out. Many fires broke out in houses and stores while Korean people were

---

\* researcher, National Mokpo University Institute of Asian Culture

cooking or heating their rooms.

The Jeonju Fire-Fighting Service's activities or equipment purchase were supported by Korean wealthy people as many fires broke out because of Korean people. Their support made an influence on organization of the fire-fighting team, which induced Korean fire-fighters to join in the team.

The Jeonbuk Fire-Fighting Maneuvers which was held in Jeonju Deokjin Park in 1935 was the largest fire-fighting traini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was an opportunity to inform the status of the Jeonju Fire-Fighting Service nationwide. Masmoto Fukuichi as a head of the Jeonju Fire-Fighting Service was appointed a representative of the Joseon Fire-Fighting Association.

Fires that broke out in agricultural area of the Jeonju neighborhood were controlled by the Jeonju Public Fire-Fighting Service. However, The fire-fighting team gradually replaced it. The fire-fighting teams were the background of the agricultural promotion policy led by governor Ogaki. Jeonbuk was a mine of fire-fighting teams as it was located in fertile plains. Fire-fighting teams were most actively organized in Jeonju. They were very active in fire control, agricultural reform and night watch.

Key Words : Fire-fighting team, Agricultural promotion policy, Private fire-fighting service, Public fire-fighting service, Fire-fighting watchtower, Fire-fighting office, Jeonbuk Fire-Fighting Maneuver, The Eup Fortress Clearance Order